한류와 한글에 대해 논하다

국립한글박물관 '한류와 한글문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와 함께 '한류와 한글문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15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 김상현 대표를 비롯해 박창식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최광식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리 문화의 기초 자산인 한글과 이로 인해 성립된 한글문화가 한류가 함께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고 한류와 한글문화에 대한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류의 원천 콘텐츠인 한글과 한글문화를 한류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했으며 2부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한글산업이 한류에 끼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1부의 기조연설은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를 거쳐 제19대 국회 교문위원을 지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박창식 총장이 맡았다.

박 총장은 문화적 부흥을 위한 기초 인프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류와 한글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제2부의 기조연설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한류, 한글문화의 활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국학의 중요성과 외국인의 한글, 한국어에 대한 관심, 문화산업에서 한글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행사는 문화자원으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한글 고전, 한국 문학, 한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1부에서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고정민 교수가 한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외대 태국어과의 케와린 교수가 태국의 한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류를 이야기했다.

또한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산업본부장이 한국 문학의 해외 출판 시장 진출 전략을 이야기하며 네이버의 김상현 대표가 디지털 시대의 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글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한글 디자인 글꼴로 한국을 홍보했던 산돌티움의 산업화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타이포디자인연구소의 임진욱 대표가 한글 글꼴의 변천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멋글씨 작가인 박병철 작가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가족형 문화 워크숍인 한글파티의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토론은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장을 비롯해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선 에스케이텔레콤 빅데이터사업부장, 이건만 이건만에이엔에프 대표, 윤디자인그룹 정유권 과장,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한류와 한글문화의 미래 전망을 위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조인스닷컴 이석우 대표의 진행으로 우리 고전을 세계에 알렸던 한국고전세계화연구소 최병현 소장, 우리 문학 작품을 세계에 보급했던 케이엘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 한류콘텐츠 개발을 했던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한창완 교수, 한글춤을 선보였던 밀물무용예술원 이숙재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편, 방송 '너의 목소리가 보여3' 등에도 출연했던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특별 공연이 클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후에는 한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만찬도 펼쳐졌다.

상담업무, 대안교육 활성화 공로 인정받다

광주돈보스코학교 채송화 상담사, 교육부 Wee희망대상 최우수상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 채송화 전문상담사가 12월 15일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가 주최한 '제6회 Wee 희망대상' 상담업무 담당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오후 1시 30분에 열렸다.

채송화 상담사는 돈보스코학교 전문상담사로 재직하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상담을 시행하고 학생들 마음에 귀를 기울여 지역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내 행사를 기획했다.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위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채송화 상담사는 "항상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동행'해주신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되었다"며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라는 곳이 학생이 사랑받을 수 있는, 학생이 존중받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해 왔고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감응하는 사랑 속에 학생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살레시오회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는 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이탈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지정 Wee스쿨이다.

2010년 개교 이래 인성교육·상담·각종 다양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만철 기자 jmc@

"우리 회사 필요한 인재 찾아 다행이다"

고양시 '찾아가는 현장채용의 날' 훈훈한 면접 소식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난 15일 식사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해 ▲웹디자이너 ▲사무직 ▲창고관리 및 배송납품 ▲생산직 ▲판매직 등의 직종으로 30여 명 채용을 목표로 80여 명이 참여해 면접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안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바람으로 많은 구직자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면접장을 찾았다. 연말연시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자리문제는 우리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는 채용예정인 원의 절반 이상이 채용될 예정으로 행사에 참가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직자가 참여해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일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취업 축하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면접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한 고용, 복지, 금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입주기관 간 다양한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깨끗한 학교 마음마저 뿌듯

인천마전초, 전교학생회 봉사활동 실시

인천마전초등학교(교장 노동철) 전교학생회 5, 6학년 임원들은 12월 14일 교내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마전 전교학생회에서는 1학기, 2학기 임원들이 매달 1회 학교 쓰레기 줍기 봉사와 교내 청결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전교학생회 어린이들이 좀 더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가꾸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자주 봉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아침 시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등교해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활용해 마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내 청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손길이 모여 우리 학교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에 전교학생회 임원들은 이른 아침 등교가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깨끗해진 운동장과 주변 환경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성도 실력이다!

인천 구산중, 2016학년도 학생 인성교육 실시

구산중학교(교장 유영옥)는 지난 12월 12일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성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한 학생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백은숙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3학년 각 반 교실에서 인성 핵심가치 및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인성요소를 함께 생각해 봤으며, 나아가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 바른 인성의 기본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특히,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다른 친구들과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참여한 김모 학생은 "요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데 '인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좋은 기회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행자부, 저출산 극복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5곳 선정

행정자치부는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한 '뉴-베이비붐'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 특교세 총 29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뉴-베이비붐'이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을 마련, 지역 중심의 새로운 베이비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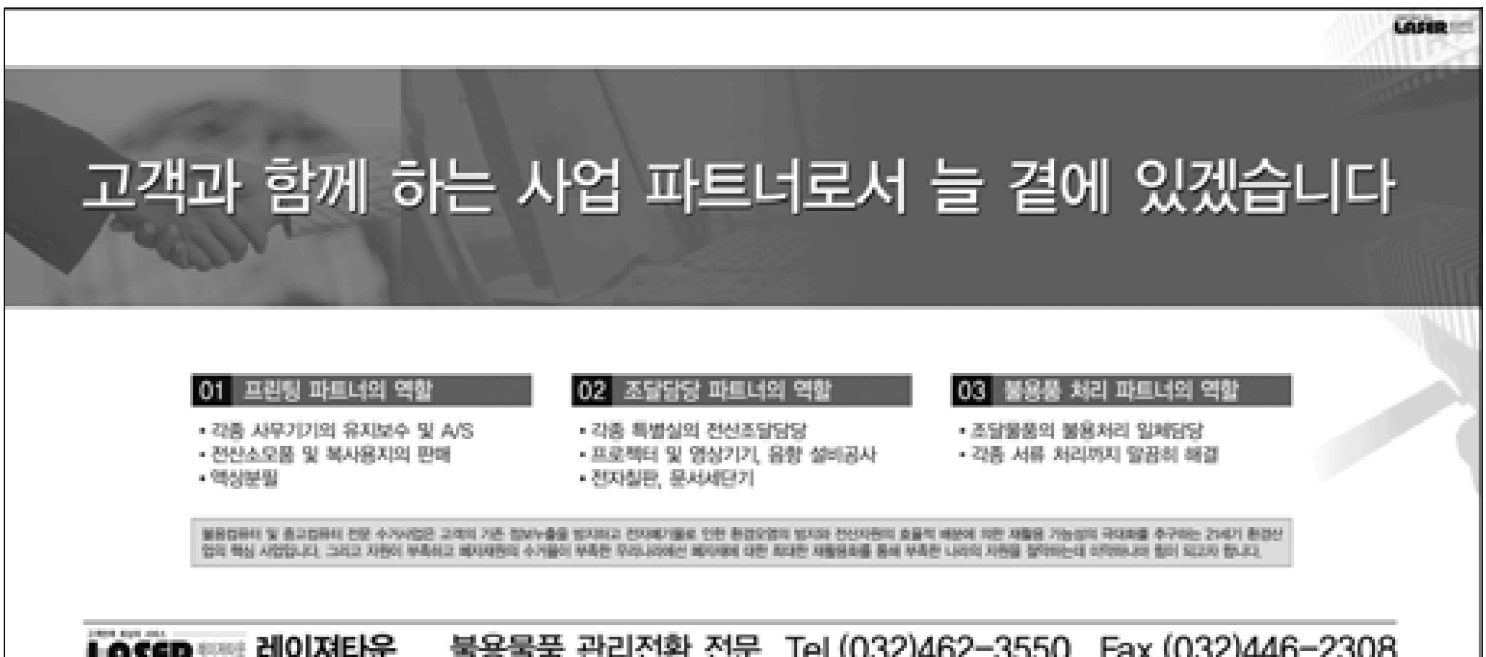
저출산 극복의지가 강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와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로 이들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총 29억원이 지원된다.

서울 성북구는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보육시설인 베이비맘스카페를 기존 아동전용보건소, 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과 하나의 벨트로 연계하고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섭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